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12월 미 소매 판매 변동없어
- Bloomberg: 뉴욕 연준, “미 소비자의 물가 및 일자리 전망 약간 회복”
- YahooFinance: 지난해 12월 수입 물가, 전년과 변동 없어
- CNNBUSINESS: 올해 1월 일자리 보고서, 내일 발표된다
- YahooFinance: 지난 4분기 미 노동비용 성장세 둔화
- Bloomberg: 미 소기업자들 경제 낙관적 입장 줄어
- WSJ: 트럼프, “새 연준 의장 지명자로 경제 15% 성장” 기대
- WSJ: “경제의 큰 돈은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흘러간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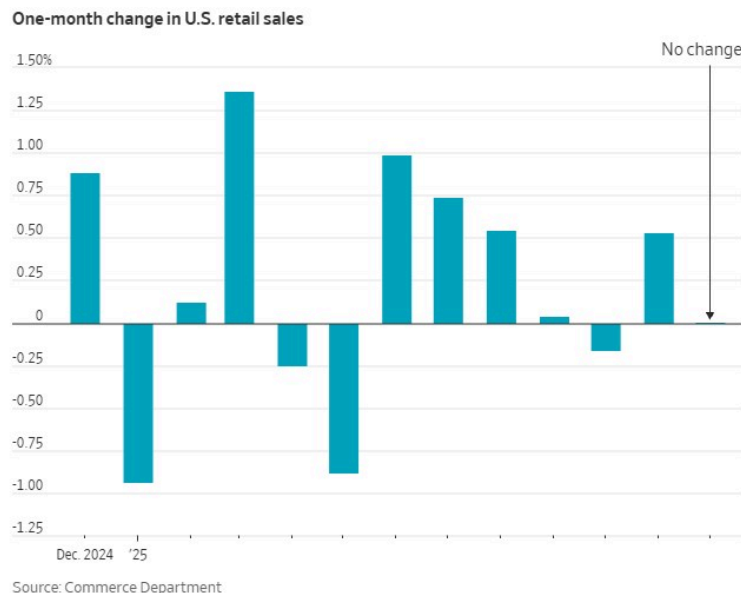
- WSJ: Spotify, 구독자 성장과 실적 호조
- CNBC중국 알리바바, 로봇용 AI 모델 출시

[미국 경제]

WSJ: Retail Sales Unexpectedly Flatline

12월 미 소매 판매 변동없어

- 12월 소매 판매가 12월에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소비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매 판매 성장을 기대했는데 이 같은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 오늘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소매 판매가 0.6% 상승한 7천3백50억 달러 규모였으나 12월에는 변동이 없었다. 당초 전문가들은 0.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 특히 자동차 딜러 판매, 가구, 전자 제품의 소매 판매가 줄었으며 반면에 건축 자재, 식품, 음료, 휘발유 판매는 증가했다.



Bloomberg: US Consumer Inflation, Labor Expectations Improve in Fed Survey

뉴욕 연준, “미 소비자의 물가 및 일자리 전망 약간 회복”

- 뉴욕 연준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1월에 미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약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엔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작년 12월의 3.4%에서 3.1%로 낮아졌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약간 감소했다. 더욱이 3개월 내 새로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46%로 늘어났다.
- 한편 연방 노동통계국은 이달 5일에 12월 구인 건수가 2020년 이래 최저로 떨어지고 해고는 소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기사

YahooFinance: US import prices unchanged year-on-year in December 지난해 12월 수입 물가, 전년과 변동 없어

- 12월 수입 물가가 전년도 동월과 변동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노동통계국은 화요일 밝혔다. 지난 11월에는 0.1% 하락했었다.
- 작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10월 설문조사 자료 수집도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연방 노동통계국은 10월과 11월의 수입 물가 월간 변동치를 발표하지 못했다.
- 또한 연방노동국은 43일간의 셧다운 이후 일정을 크게 줄이면서, 상세한 보도자료 발표도 건너뛰었다.

기사

CNNBusiness: The first jobs report of 2026 is coming out Wednesday. It could be a doozy

올해 1월 일자리 보고서, 내일 발표된다

- 수요일에 2026년이 시작된 이후 미국 고용시장의 상태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2025년 고용 흐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연방 노동통계국은 이번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1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핵심적인 고용 지표는 잠정적인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발표가 다소 늦어졌으며, 채용도 해고도 활발하지 않은 침체 상태에 머물러 온 미국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는지 보여줄 예정이다.
- 작년 12월 연방 통계국에 따르면 12월에 신규 일자리가 5만 개 늘어났는데 이는 연간 월평균 증가 수준과 대체로 비슷한 규모다. 반면에 실업률은 4.4%로 소폭 하락했다.
- 일부 취업 관계자들은 “많은 근로자들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기사

YahooFinance: US labor costs growth cools in fourth quarter 지난 4분기 미 노동비용 상승세 둔화

- 지난 4분기 미 노동비용 상승세는 예상외로 둔화되었는데 지난 4년 반 기간에 가장 적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노동 수요가 둔화하면서 임금 상승이 억제된 것이다.
- 화요일 연방노동국의 노동비용을 측정하는 고용 비용 지표는 지난 3분기에는 0.8% 상승했으나 지난 4분기에는 0.7% 상승했다. 0.8% 상승률을 예상했었다.
- 지난해 12월까지 12개월간 노동 비용은 3.4%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2분기 이래 가장 소폭의 상승률이었다.
- 이 지표는 일자리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노동시장의 유휴 인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지표이며, 근원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로 알려졌다.

기사

Bloomberg: US Small-Business Optimism Eases on Economic Expectations

미 소기업자들 경제 낙관적 입장 줄어

- 1월 들어 미 소기업자들의 경제에 대한 낙관지수가 3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 전국 연방 독립 비즈니스(NFIB) 낙관 지수는 오늘 화요일 0.2 하락한 99.2로 오늘 화요일 발표됐다. 이 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7개는 하락했고, 3개는 상승했다.
- 경기 개선을 기대하는 수기업자 비율은 12월 4개월 만의 최고치에서 3포인트 하락한 21%를 기록했다.
- 그러나 향후 3개월간 물가 조정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소유주는 순 16%로 12월 대비 6포인트 상승하며 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또한 지금이 사업 확장 적기라고 본 소유주는 15%로, 6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기사

WSJ: Trump Says Economy Can Grow 15% With Warsh as Fed Chair

트럼프, “새 연준 의장 지명자로 경제 15% 성장” 기대

- 트럼프는 새 연준 의장 지명자로 미 경제가 적어도 15%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경제를 15%나 그 이상 성장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의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그는 연준 의장 지명자가 2017년 당시 유력 연준 의장 후보였는데 “내가 그 대신에 파월 의장을 선택한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미 경제가 2.2%의 경제 성장을 그리고 2027년에는 1.9%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

WSJ: The Big Money in Today's Economy Is Going to Capital, Not La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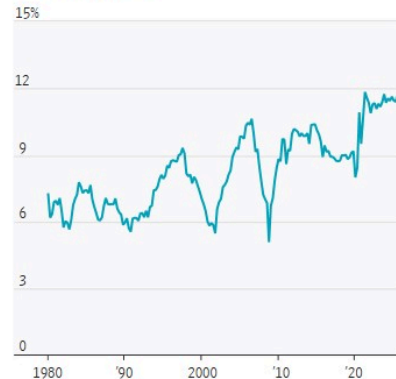
“경제의 큰 돈은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흘러간다”

- 1985년 IBM은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고 수익성 높은 기업 중 하나였으며, 직원 수가 거의 40만 명에 달했다. 오늘날 Nvidia는 가치와 수익성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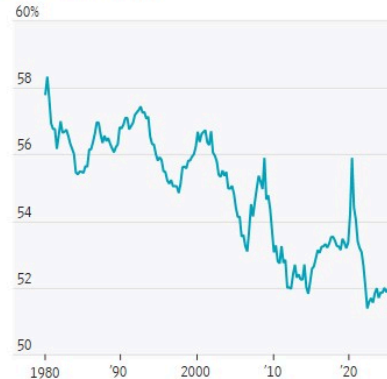
- 서 IBM의 20배에 달하지만, 고용 규모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 이러한 비교는 오늘날 경제의 핵심을 보여준다. 경제적 보상이나 수익이 노동보다는 기업, 주주, 임원 등 자본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 이후 이익과 그에 따른 시장 가치는 급등했지만, 일반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이익만 누린다.
 - 이 막대한 자본력 때문에 주가 급등 등 시장 변동은 소비 지출에 큰 영향을 주며, 특히 AI는 경제 성과를 자본 쪽으로 더욱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해고 증가와 구인 급감 속에도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5만 선을 돌파한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Corporate profits and labor compensation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income

Corporate profits*



Labor compensation*



*Profits are before tax. *Wages and benefits
Source: Commerce Departmen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Spotify Keeps Adding Subscribers as Features Expand Spotify, 구독자 성장과 실적 호조

- 스웨덴 오디오 스트리밍 회사인 Spotify는 4분기에 예상치 않는 실적을 거두었다. 구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 구체적으로 이 회사의 사용자는 4분기의 경우 7억 5천1백만 명으로 증가해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 11% 증가했다.
- 프리미엄 구독자의 경우 10% 상승한 2억 9천만 명을 달성해 예전의 가이드라인보다 1백만 명을 초과했다.
-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순수익은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4분기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CNBC: China's Alibaba launches AI model to power robots as tech giants talk up 'physical AI' 중국 알리바바, 로봇용 AI 모델 출시

- 알리바바가 새로 출시하는 AI 모델은 로봇을 실제로 구동시키는 모델이다. 로봇, 드론, 제조 기계 등 실제 기계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AI 모델, 이른바 Physical AI를 출시하고 있다.
- 알리바바 'AMO 아카데미'
- 공개한 영상 중 하나에서는, 로봇이 과일을 식별하고 바구니에 담는 장면을 보여준다.

- 엔비디아와 구글은 로봇 및 소위 Physical AI용 모델을 개발하는 주요 기술 대기업이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